

# “의뢰인 없나요” 변호사들 울상

## 극심한 불황에 ‘나홀로 소송’ 부쩍 늘어 국선변호인 경쟁 치열 ... 휴·폐업 증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수가 8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는 등 불황의 여파가 변호사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지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적었던 국선변호사 신청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국선변호 조차 맡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광주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수는 광주 160명, 순천 33명, 목포 15명, 해남 5명 등 총 2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15명)에 비해 2명 줄어든 것이다. 회원 수 감소는 지난 1948년 광주변호사회가 창립된 이후

두 번째다.

광주변호사회의 회원 수는 지난 2000년 165명에서 2001년 2명이 줄어 5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2002년(168명), 2003년(178명), 2004년(188명), 2005년(194명), 2006년(211명), 2007년(21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 변호사 수 감소는 오랜 불황 속에서도 변호사 수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최근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등에 따라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는 등 수입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역 출신의 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상당수는 당사 개업을 하기보다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

등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지방 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지역 3~4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의 진출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불황으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이합집산’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변호사업계의 시름은 회원들의 휴·폐업 현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휴업에 들어간 변호사는 32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명 늘었다. 올해 회원 감소분(2명)을 등 수입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역 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국선변호를 자청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광주

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변호사는 모두 66명(광주지법 54명, 광주고법 12명)으로 지난해(64명)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올해 광주고법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변호사 12명 가운데 7명만 재판을 맡을 만큼 경쟁이 가열되는 추세다. 또 올해 광주지역에서 대법원에 국선변호를 신청한 변호사 13명 가운데 2명은 재판을 맡지 못했다. 최근 마감된 대법원의 ‘2009년 국선전담변호사’에는 40명 선발 예정에 전국에서 174명의 변호사가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불황에 변호사들의 수입건수가 급감하면서 건당 수입료가 30만원에 불과한 소액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3~4년 뒤 로스쿨 출신까지 쏟아질 경우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중국산 ‘짜퉁’ 가방 등 10억대 판매 조직 검거

목포세관은 20일 중국산 가짜 명품 가방·선그라스·시계 등을 국내에 들여온 뒤 판매한 박모(여·51)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목포세관에 따르면 박씨 등은 부산 중구 신창동 소재 의류골목내에서 중국산 루비통 가방 및 선그라스, 로레스 시계 등 가짜 명품 771점(시가 10억원 상당)을 보관·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께 중국의 짜퉁 전문시장인 광동성 광저우시 소재 찐사투시장에서 가짜 명품 가방 27개를 인민폐 8천200원(한화 165만원)에 구매해 한국에서 개당 9~1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개당 3~4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세관은 최근 도매업자들이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반입·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목포=이상규기자 ls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49분 달돋이 03시 38분 달질 13시 19분

**겨울비** 흐리고 오전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온 후 개겠다.

광주	흐림	2/7°C
목포	흐리고 한때 비	2/7°C
여수	흐리고 한때 비	4/7°C
완도	흐리고 한때 비	3/7°C
구례	흐림	0/6°C
해남	흐리고 한때 비	2/7°C
장흥	흐리고 한때 비	2/7°C
고흥	흐리고 한때 비	3/9°C
순천	흐리고 한때 비	3/7°C
영광	흐리고 한때 비	3/7°C
진도	흐리고 한때 비	3/7°C
전주	흐림	3/7°C
남원	흐림	1/7°C
옥산도	흐리고 한때 비	3/6°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북서	0.5~1.5m	목포 10:50	03:1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0~2.0m	여수 06:22	16:4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0.5~1.5m	여수 06:22	12:34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0~2.0m	여수 17:53	--:--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씨						
최저/최고	0/10	-2/-1	-6/-1	-6/1	-6/2	-4/5

## 소아암·백혈병 완치 39명 축하 잔치



“완치 메달 받았어요” 20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소아암·백혈병 완치잔치’에서 39명의 어린이·청소년 완치자들이 기념 메달을 목에 건채 그동안 후원해준 각 기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자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화순 전남대병원, 가족·의료진·후원단체 등 200여 명 참석

소아암과 백혈병 등 난치병을 이겨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응진재단의 후원으로 20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제 8회 소아암·백혈병 완치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연(19)양 등

완치 환자 39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의료진, 사회복지 후원단체장, 의과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희귀 혈액암의 일종인 ‘캐슬만병’을 이겨낸 김혜연양은 “3년 전 들어보지도 못한 캐슬만병 판정을 받았을 때도 해도 절망에 어쩔 줄을

몰랐다”면서 “투병 과정에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고, 이젠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며 자신에게 힘을 보태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훈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소아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

이며, 완치가 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소아암과 백혈병을 꺾고 이겨낸 완치자들 모두에게 기념 메달이 수여됐으며, 지금도 같은 질환으로 싸우고 있는 어린 환자들에게 완치자들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YS 사위 별장 ‘굴삭기 습격’

### 경기도 광주 경찰, 배후 여부 등 수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위 집 습격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0일 배후 여부 등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전모(34) 씨 등 구속자 4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에서 범행 당일 구속자들과 수시로 통화한 이모(56) 씨 등 4명이 공범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자 4명과 행방을 추적 중인 이 씨 등 4명은 모두 사기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일단 단순 강도

사건으로 판단해 정지적인 음모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사건 자체가 워낙 황당무계해 이 씨 등을 추가 검거한 뒤 사건의 진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 씨는 과거 용역업체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아르바이트생과 굴삭기 기사 등 28명을 일당 20만~40만원에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등은 지난 11일 새벽 0시30분

경에 굴삭기를 앞세우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만사위인 이모(60) 씨의 광주시 퇴촌면 전원주택에 침입, ‘지하에 비자금을 보관하는 병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 씨에게 30만원을 빼앗다가 경비시스템이 작동, 출동한 경찰에 걸려왔다.

무역업을 하며 외국을 오가는 이 씨는 최근 들어 전원주택을 증축해 거주했으며, 사건 당시 전원주택에는 이 씨와 70대 가정부 등 2명만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 조선태 합격자 1천249명 발표

조선태대학교는 20일 2009학년도 정시모집 나군 합격자 1천249명을 발표했다.

정시모집 나군은 총 모집인원 1천249명에서 3천885명이 지원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시모집 나군 합격자는 정시 가군·다군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2월 2일~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2월 4일 등록마감 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 5일~16일까지 예비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30대 공무원 우울증 자살

지난 19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H아파트에 사는 최모(38·공무원)씨가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 김모(5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도서관 직원인 최씨는 수년 전부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천마(天馬)는 '아름답게 말아져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했다' 하여 이를 붙여진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써, 무주군이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칠늘북리 천마**